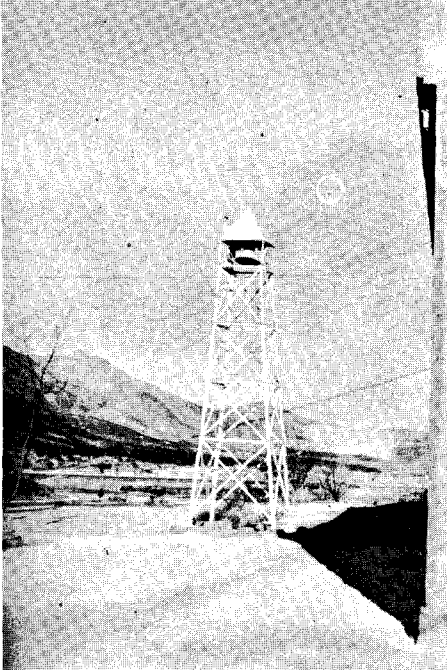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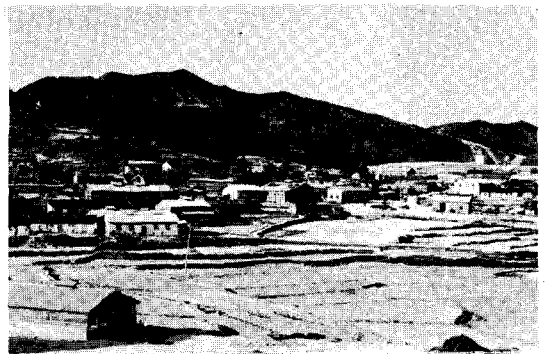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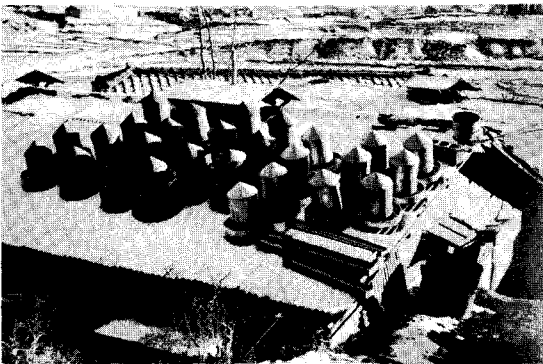
청천농장을 찾아



경기도 인천시 부평교외에 자리잡은 청천농장을 찾는다. 조합원이 신앙으로 뭉쳐 깨끗한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농장 중앙 언덕에 솟은 교회당의 종탑은 백설을 이고 너무나 눈부신 자세로 서있어 그들을 대변하는듯 하다.

○...청천농장의 전경. 중앙에 조합사무실 우측에 계란 공판장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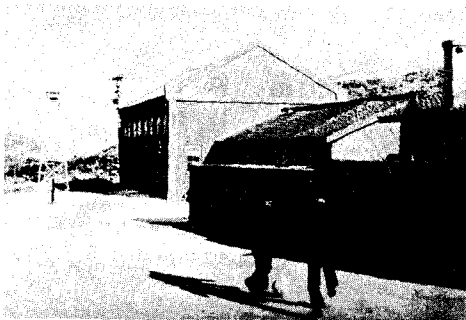


○...업동의 계사위에서 햇볕을 쬐는 금이들.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하는 자세는 양계인이라면 너나 나나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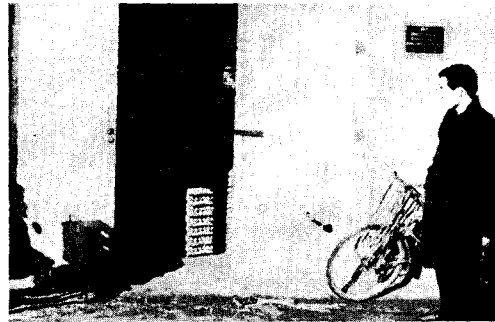


○...사료가 달려온다. 사료가 떨어져가면 닭보다 더 초조해지는것이 양계인들. 사료공장으로 빗발치는 재촉을 안고 달려오는 삼륜차위의 조합원은 어제의 고통이나 귀를 에이는 추위는 아랑곳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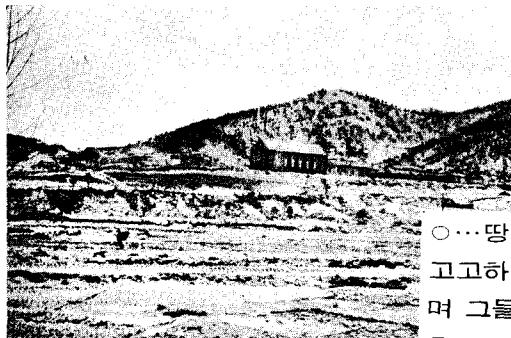
○...조금이라도 빨리 사료를 주고자 남정네나 아낙네 활것없이 뛰어나온다. 사람은 굶을 수 있어도 닭은 굶길 수가 없단다.



○...이들의 모임처인 교회와 공회당 공터는 항상 어린이 차지이다. 바쁘지 않은 동심들에서 이농장 유일의 여유를 본다.



○...미군들이 지어 주었다는 계란 공판장. 이곳을 통해 전 농장의 계란이 집합되어 판매된다.



○...땅거미가 깔려오는 시간이 되었다. 고고하게 서있는 언덕위에 교회당을 보며 그들은 내일을 향해 한껏 경건한 마음으로 일손을 거둔다.

청 천 농 장



<조병근 씨>

취 재 부

양계인의 살길은 무엇인가? 기자는 인천 부평에 자리잡고 있는 청천농장을 방문하여 해답을 구해 보기로 한다.

어제의 그늘에서 따뜻한 햇볕을.

백설이 하얀 산하(山河)를 지나 경기도 부평 교외의 청천농장을 방문한다.

지난날 사회에서 나환자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멧멧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것이다. 지난달의 원주 대명원과 다른점은 청천농장은 조합원이 예수교 장로교인으로서 신앙중심으로 뭉친 단체라는 점일 것이다.

조합의 역사와 현재

청천농장은 조합장에 조병근씨가 취임하고 있으며 1960년에 군사혁명정부의 정부시책으로 현 장소에 정착하였다 하며 현재 90세대가 양계와 양돈을 주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토지개간에 필요한 자급비료의 확보책으로 축산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축산이 주업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규모는 10만평의 대지위에 성계 6~7만수 부로 일러 3만수이며 세대당 2~3,000수 규모가 제일 많다고 한다. 채란계는 보통 케이지 방식을, 부로 일러는 바타리와 평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물을 이용하여 양돈 200두를 사육하고, 특수작물로 양파를 재배한다고 한다.

양계단지로서의 장단점은?

양계업이 점차 전업화내지 기업화되고 따라서 수당마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원료의 공동구매 판매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뭉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것이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등도 있을것 같아 축산담당이사료 수고하신다는 허돈씨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장점으로서는 사료 약품 병아리등의 구입에서 단체의 힘을 발휘하므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집단 양계에서는 질병발생의 위험이 너무나 큰것이 매우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무단출입, 부로일러의 사육으로 인한 채란계에의 질병 위협등으로 그 위험성은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켓슬이나 계두등의 예방접종은 강제로 실시하다시피 하지만 계사의 소득은 판매부에서 판매하는 소득약품을 각조합원이 구입하여 자의로 소득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출입을 규제하고 우선 소득을 시키고 들여보내고, 단지내 소득은 인부를 고용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로일러 구매상인들이 밤에만 주로 오기때문에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득방법으로 인부를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나 각 조합원이 다른사람의 계사에 출입하는 사람을 반기지

않아 자체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각종 물품의 구입방법?

청천농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는 병아리나 사료를 의뢰받아서 이의 구입을 조합에서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병아리는 백혈병과 마력병의 피해가 35~50%까지 달한 일도 있어 고심을 하여 부화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부화장의 시설과 종계장의 수준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한다고 한다.

약품도 메이커를 선택하여 효과를 인정한 후 구입하나, 그 효과면에서 일반 첨가제의 품질에 의심되는 점이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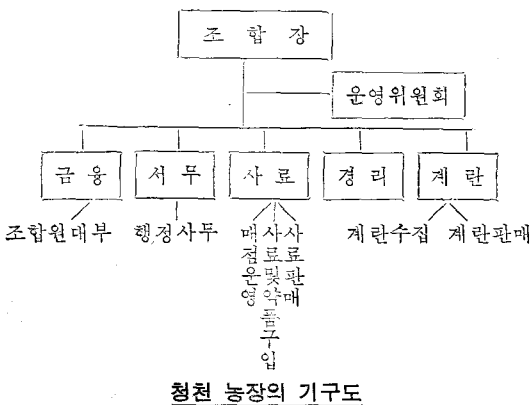
사료도 역시 대단위로 수개사료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원하는 회사의 사료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양계단지로서의 이점을 살려싼 가격으로 필요한 병아리나 사료 등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 조합의 운영.

다음 조합의 운영상황과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본 월간양계에 내달 계속하여 실리는 현지 르뽀는 소군양계가의 「비전」을 명시하고 그에 부수되는 효과나 판매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선 그 체제에 대하여 알아보니 조합장과 함께 운영위원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청천



농장을 운영해나가고 있으며 5부로 구성된 실무진이 일하고 있다.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임기는 1년이라 한다. 조합의 운영비는 사로나 약품등의 판매대에서 공제되어 염출되고 있다. 조합의 기구도는 별표와 같으며 금융부에서는 조합원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일종의 저민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생산물의 판매는 역시 큰 문제

단지운영의 큰 이점은 생산물의 판매에 단체의 힘으로 중간상인이나 중간마진의 폭을 줄이는데 있고 이점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면 그 단지는 절름발이라고 볼수 있겠다.

청천농장의 경우 주생산물인 계란이나 부로일러는 모두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자체의 직매소 개설이나 군납등의 문제는 조합측의 사정과 지역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허튼씨는 「생산물판매를 전적으로 중간상인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획득할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것이 무척 가슴아프다. 이점에 대해서 사료회사같은 자본력이 큰 단체가 사료대금을 생산물로 회수해가고 판매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하지만 무척 어려운 문제겠지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기 전엔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군납은 농협이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청천농장의 지리적 문제로 실현되기가 힘들고 대상인들이 생산물을 사가지만 이들의 가격이 너무 싸고 불황기에는 그들이 구매 의욕이 격감하므로 조합측에서는 큰 곤란을 자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 사료회사나 기타 정부 등의 도움이 없다고 현실적인 모순을 외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점은 역시 조합과 조합원들의 수익과 일치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 기술 보급 문제는 어떻게?

기술 보급문제는 년 2~3회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기술습득을 하고 있으며 사료회사와 약품회사의 기술진이 월 2~3회씩 출장지도나 세

미나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양관리와 질병문제를 지도해주고 상담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조합원중 상당수가 20년경력의 양계인이므로 큰 애로점은 없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각 사료·약품회사는 그들의 아파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 금년의 계획과 전망

청천농장의 금년계획은 어떠한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년도의 양계전망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 지나친 규모의 확충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작년도에는 불황기때 생산물을 판매하고도 자금회수가 되지않고 조합원에게는 현찰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매우 곤경을 겪었는데 역시 금년전망에 자신이 없다고 하며 허든씨는 피식 웃는다.

그러나 농장내의 상당수의 계사가 신축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확충이 있을것 같아 보였다 보다 더 안정된 시장조건하에 모든 조합원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혹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여기에 한국양계인의 고민이 있을 것 같다.

..... 현재의 업계와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은?

「제일 중요한 사료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경제성 문제로 보아 도저히 자가 배합사료는 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년전만해도 본농장에서는 자가배합을 하여 사료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원료사료 확보문제, 기술문제 등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배합사료의 품질은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나 그래도 간간히 품질변동으로 닭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유감일 때가 많습니다. 첨가제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품질이 안정되지 못한것 같고 해서 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첨가제의 지나친

사용을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조합원에게 그 사용을 말리는 형편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저희들이나 업자의 많은 반성이 필요하리라 여겨지곤 합니다. 그리고 사료회사는 현재의 생산물 유통구조의 모순을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점까지 손을 뻗쳐주면 저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의 증진만 독려하지 말고 좀더 융통성 있는 행정 즉 생산과 생산물처리 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줄 수 없을까 생각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물론 저희로도 노력을 계속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허든씨의 요망사항은 전국 양계인의 소망과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아마도 금년도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 예상되나 양계인들의 이런 소망은 무척 절실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진다.

..... 귀로에서

날씨가 차졌다. 백설이 산하를 덮은 대지위에 어두움이 깔려온다.

비록 음성나환자의 부락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양계인으로서 너무나 잘 뭉치고 너무나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호의 대명원, 이번의 청천농장—두 농장 모두 숙명을 이겨내고 내일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의 양계업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소규모 양계가들은 어떻게 그들의 위치를 굳힐 수 있을 것일까?

이점을 캐어보려 기자는 다음달에도 곳곳이 전진하는 양계단지나 개척자적인 정신에 충만되어 있는 양계가를 찾으려 계속해서 뛰리라 다짐해 본다. □□

※ 월간 양계 구독 ※

월간 양계를 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하기 금액을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바꾸셔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

1년분 : 1,000원

6개월분 : 600원

보낼곳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 ☎ 0321